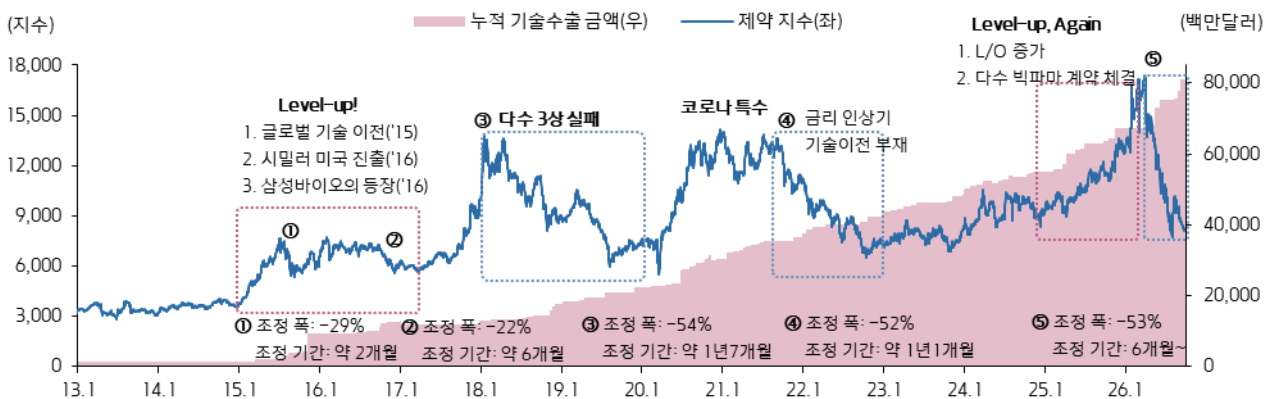




쇼킹하지 않은 약재, 서프라이즈한 호재

제약·바이오 섹터는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신뢰도 하락 등으로 데이터나 이벤트를 앞두고 긴장감과 약재 피로감이 지속 되어왔기에 오히려 이제는 기대치가 낮았던 예상 이벤트 및 약재 발생은 개별 종목 이슈로 제한되며 더 이상 크게 동요 되지 않고, 조금씩 호재에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섹터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국면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음. 기간 조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대외환경 외에도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 확인 필요.

코스닥 제약 지수와 누적 기술 수출 금액 추이



주: 조정 폭은 고점 대비 바닥까지의 지수 하락 폭을 의미. 조정 기간은 고점 대비 바닥까지 하락 후 반등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

자료: 에프앤가이드 Data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바닥의 시그널. 긴장과 불안했던 발표들은 하나둘씩 해소 중. 예상치 못한 호소식은 그저 방갑다

>>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는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신뢰도 하락, 연이은 약재 등으로 데이터 발표와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긴장감이 상승해 회피 또는 관망해 왔음.

>> 긴장감과 약재 피로감이 지속되며 이제는 예상했던 데이터 발표나 기술 반환 및 평가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이벤트 발생이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남은 주요 이벤트〉

- 한올바이오파마 D2T RA 2상 발표 (하반기)
- 펩트론 기술평가계약의 종료 (~10/7)
- 한미약품 MSD에 기술이전한 MASH 치료제 개발 진행 여부

→ **미달성 및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개별 종목 이슈로 단기 영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긍정적인 성과 달성시에는** 섹터에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

>> 반면, 시장의 관심이 낮았거나,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호재 발생은 섹터의 바닥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HLB의 담관암 신약 리픽투(LYRFIGTU) 승인은 시장의 관심이 낮았던 이벤트. 이 외에도 비상장사 아리바이오의 경구용
알츠하이머 신약 3상 발표가 오는 11월 CTAD 구두발표 예정으로 시장의 의심을 받아온 언더독 기업들의 긍정적인 성과
가 섹터의 신뢰도 형성에 기여 및 바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바닥 형성 후, 추세적 우상향에는 펀더멘털 변화 필요

>> 섹터의 가격 조정의 바닥은 확인되고 있는 상황.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려면 우호적인 대외환경 요건과 섹터 순환매 외에도
근본적으로 펀더멘털 개선 확인이 필요.

주요 펀더멘털 개선 요소로는 (1) 글로벌 진출 신약의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2) 고퀄리티의 기술이전,
(3) 글로벌 경쟁력 입증하는 임상 데이터 발표, (4)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

이 외에 섹터에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학회도 이어진다는 점이 긍정적.

유럽종양학회(ESMO) 10/23~27일, 비만학회(ObesityWeek) 11/14~17일, 알츠하이머학회(CTAD) 11/16~19일,
ESMO Asia 12/4~6일, 미국혈액학회(ASH) 12/12~15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7.1.11~14일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23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